

與 “개헌 논의 시급” 野 “민생 해결 우선”

국회 대정부질문... 총청권 의원 과학벨트 집중 거론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구제역과 전세값 폭등 등 민생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맹폭을 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극심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와 정당구조를 불 때 ‘운영의 묘’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개정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하한 개헌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었고, 이근현 의원은 “개헌이 연내에 가능할 수 있는지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며 “비권력구조 개헌 발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답변자로 출석한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와 관련,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에 대해 여야 모두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개헌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은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개헌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제역 등 민생에 대해 무능한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대통령과 한 나라당을 겨냥, “개헌에 더 관심이 많

고 민생엔 관심이 없다”고 꾸짖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위기다. 도시는 전세대란으로, 농촌을 구제역 대재앙으로, 국민은 물가폭탄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는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는 고환율 정책을 통한 국민의 피눈물이 바탕이며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수출 대기업은 163조원의 환차의 특혜를 받았고 국민은 가구당 864만원의 소득이 깎였다”고 비판한 뒤,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김창일 의원은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구제역 대응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도 이날 총청권 의원들이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이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공약과 선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대통령은 총청권 조성을 수차례 공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총리도 대통령 공약은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보다는 실정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황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총리 “정부가 구제역 무한책임 져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구제역 파동과 관련,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총청도로 가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총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 김 총리는 “우리 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

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총청도로 가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총리가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원 보선 MBC사장 출신 박매치 되나

민주, 최문순 출마 결심... 한, 엄기영과 대결



최문순 의원 엄기영 전 시장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문화방송(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대 엄기영’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의원이 오랜 고심 끝에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최 의원은 내일 중 강원도로 주된 등록을 옮기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최 의원이 직접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일 이전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25일까지 주소지 이전이 없었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강원도는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이광재 후보가 당선돼 돌풍을 일으킨데다가, 최근에는 구제역 창궐과 강원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등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역 민심이 험악하고 이 전 지사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출신인 비례대표인 최 의원은 그동안 전일 이광재 지사가 영서 출신이어서 ‘영동(강릉) 출신 후보를 낼 경우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민주당 전략과 언론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 엄기영 전 MBC사장이 대

항마가 될 경우 전직 MBC사장거리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출마에 부담을 느꼈으나 권오규 전 부총리, 이광재 전 도지사 부인 등이 모두 출마를 고사하자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최문순 대 엄기영’ 박매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에서도 한때 한승수 전 총리를 출마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한 전 총리가 최근 지역연론과 만나 출마설을 일축했기에 따라 엄 전 사장 출마가 거의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민주 도의원 47명 “순천 무공천 반대”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47명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순천 보궐선거 무공천 계획을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정통성, 대의정치 등을 위해서 반드시 당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의정치를 기만하는 정당후보 무공천은 있을 수 없으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지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원들의 이날 집단행동은 지난 22일 박 전 남지사가 같은 취지로 민주당의 순천 무공천 계획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지 이틀만에 나온데다 순천시 의원들도 무공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재환·박상철 순천 보선 출마

조재환(62) 전 민주당 의원과 박상철(51) 경기대 교수가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순천의 민심을 바로세우고, 순천의 비전과 일류 순천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아권연대, 민주당 후보 무공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 중심의 아권연대가 돼야하고, 무공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현 민생의 아권연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인 박상철(51) 경기대 교수도 이날 순천시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는 순천 발전을 책임질 중랑감 있는 정치인을 뽑는 중대한 선거로, 국회의원이 되면 순천의 화합과 발전, 민생경제, 정권교체를 위한 희망의 정치를 펴겠다”며 “특히 현안인 국제정원박람회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정기자 ejkim@



조재환 전 의원 박상철 교수

다시 불붙은 무상 복지정책

민주정책포럼 토론회서 인식차 여전

보여졌다. 특히 김효석 의원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부자와 빈자, 정부와 민간의 ‘함께하는 복지’를 골자로 한 ‘제4복지의 길’이라는 구상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민주당 정책위의 보편적 복

지에선 잘츠안이 제기됨에 따라 7월 당의 구체적인 복지정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안팎의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당 ‘재원지의 길’이라는 구상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민주당 정책위의 보편적 복

인했다. 그는 “재정·복지·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한 세원 중 20조원만 투입하면 3+1 정책을 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면 노무현정부 때 이미 복지국가를 이뤘다”면서 “일대 조세개혁을 단행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우리가 대안이 될까말까하다”고 반박하며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시선관위원회에 심상철 지법위원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심상철 광주지법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상철 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선관위가 변화된 선거제도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함으로써 국민



법 부장관사, 서울고법 부장관사 등을 역임했다. /최원일기자 cki@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중앙선관위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오는 25일 순천시 등 재보선이 치러지는 전국 18개 선관위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재보선 지역 선관위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공인받음*

자격등급별	개강 일시 (과정별)	수업기간 (24주)
1. 한자지도사 3급	• 토요일 오전반: 2011.3.19(토)09:30 • 월·목 오후반: 2011.3.21(월)14:00 • 월·목 야간반: 2011.3.21(월)18:20	2011.8.27 (96시간) 2011.4.28 (96시간) 2011.4.28 (96시간)
2. 한문지도사 2급	• 월·목 오전반: 2011.2.21(월)09:30 ※ 2011.3.31(목)까지 추가모집함	2011.4.11 (96시간)
3. 한문지도사 1급	• 금요일 오전반: 2011.3.18(금)09:30	2011.8.26 (96시간)
4. 한문지도사 특급(훈장)	• 토요일 오후반: 2011.3.26 수료 ※ 2011.4.21(토) 개강 예정	2011.9.10(금) (96시간)

※ 과정별 지도교수 내분이 명망의 합니다.

- 모집기간 : 2011. 02. 18 ~ 2011. 03. 21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수강료 : ₩350,000 (농협 : 175375-56-065137)
- 자격의 활용
 - 방과후 학교 교사 ■ 학원설립 및 교사 ■ 각종 사회교육기관 강사
 -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시범) 자격취득
 - 국·한문 혼용급수 (고급~중급) 자격취득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문의 : (062)366-9666, 367-8666. 원장실 011-607-6292
 - ▶ 접수처 : 광주·서구·농성동 633-28 (간강관리협회 부근)

국가공인자격관리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연수원

국비지원/일반인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3월 [5일(토) 주말반] 대개강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www.egosi.co.kr

★농업인·축산업·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박사, 김세미농약박사, 윤중하(전)풍관원, 초대농동사협회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정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접농업전문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익원기입구, 광주교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

-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 소독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